

## Immediate implantation and immediate non-functional loading in anterior single tooth restoration

박철수\*, 허남훈, 김성용, 최목균, 최용창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치과학교실 보철과)

상악 전치부에서 단일 치아의 수평적 치근 파절이 발생했을 경우 크게 3가지의 보철적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첫째, 잔존 치근을 발치 하지 않고 orthodontic force를 이용하여 치근을 맹출시킨 후 post & core를 수복하고 all ceramic crown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crown-to-root ratio를 고려한다면 예후가 불량해 질 수 밖에 없고, 교정적 맹출 및 보정 기간동안 provisional restoration을 할 수 없을뿐더러, clinical crown lengthening procedure가 부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복잡한 시술이 사료된다.

둘째, 잔존 치근을 발치한 후 ovate pontic을 이용한 soft tissue contouring을 하고나서 3 unit PFG collarless Br.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가장 일반적인 수는 있지만 인접 치아의 치질을 삭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high smile line일 경우 emergency profile을 재현하기가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비 심미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또한 2002년 춘계 보철학회에서 나온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에 있어서 3 unit Br.의 평균 수명은 7.5년인 바, 그 예후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성공을 약속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임프란트를 이용한 보철 수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발치 후 2달이 지나면 labial bone

plate가 소실되기 때문에 emergency profile의 재형성이 매우 힘들다. 따라서 periodontal retention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mmediate implantation이 필수적이다. 또한 customized healing abutment를 이용하여 immediate non-functional loading을 가한다면 기존의 emergency profile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temporization이 가능하고 부가적인 soft tissue의 contouring periods가 필요 없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이를 빼자마자 치아가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환자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며, 높은 성공율이 보고되고 있다..

치과 임프란트의 성공은 기능 하에서 임프란트와 bone이 장기간 유지되는 osseointegration 상태를 가지며 여기에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워야 한다. 그러므로, 상악 전치부의 경우 심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갖는다면 이는 임프란트의 실패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immediate implantation and immediate non-functional loading을 이용한 전치부의 단일 치아 수복 증례를 발표하고자 한다.